▶▶ 매일 INDEX

4면
전주종합경기장 '시민의 숲' 착공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음 2월 29일) 제2987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자치경찰제, 개선 시급"

시도지사협, 국회서 토론회 공동 개최

이형규 위원장, 주민 참여 고취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건의
송하진 도지사 "모두가 필요로 하는 제도 되도록 의견 구한다"

자치경찰제의 제도개선 방안과 지역 현장에서 바라보는 자치경찰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하 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장 등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위원장, 박재호·박완수·김용판·서범수·임호선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학회장 최종술 동의대학교 교수)가 공동주최했다.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시·도 지역 현장에서 '주민안심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역현장에서 바라보는 자치경찰제의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향후 지역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로의 개선·전환 방향 논의를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이날 행사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의 개회사 및 축사에 이어, 기조강연 그리고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기조강연에서는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현행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한계와 논란·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역설했다.

이형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법 제정,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역할 강화, ▲자치경찰 재정확보 방안 마련, ▲주민 참여를 고취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건의했다.

두 번째로,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에 대해 효율적인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양영철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순서에서는 발제를 맡은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가 '경찰권의 효율적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가치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입법적 개선 과제'를 설명했다.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등 토론자들은 자치경찰제의 정책적·입법적 개선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날 송하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분권의 역할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핵심축으로서 지방자치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하진 회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며 "자치경찰제가 더욱 발전하고 모두가 필요로 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의 깊이 있고 실질적인 의견을 구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이형규 전북 자치경찰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제시, 특장차 산업 중심지로 '우뚝'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준공식
내년까지 성능 시험장비 6종 단계적으로 구축

30일 김제 백구 제1특장차전문단지 내 자기인증센터에서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준공식이 열렸다.

전북 김제가 특장차 산업 중심지로 부상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이 준공됐다.

도는 30일 김제 백구 제1특장차전문단지 내 자기인증센터에서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김광수 김제부시장, 류익희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준공을 축하했다.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은 지상 1층 규모(부지 1,973㎡, 건축연면적 1,260㎡)로 시험시설(3개 진로), 사무실, 민원실 등을 갖췄다.

오는 2023년까지 성능 시험장비 6종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그간, 상용차산업과 동반성장이 용이한 특장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김제 백구 제1특장차전문단지를 조성하고,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구축하는 등 특장차 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 매진해 왔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특장차 자기인증센터는 단지 내 특장차기업의 비용·시간 절감 등 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대전 이남 특장차 자기인증 주요 거점지로서 매년 자기인증 검사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북도와 김제시는 제2특장차 전문단지, 특장차종합지원센터, 특장차전문검사소 등 전북 특장차 산업에 활력을 더할 기반을 구축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정부(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 사업' 등을 통해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장차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준공에 힘입어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기능 강화로 전북도와 김제시가 명실상부한 특장차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제시,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전북도가 특장차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도내 노후산단,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다시 일어서나

군산2국가산단 등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지구로 지정

도내 노후 산단이 지역혁신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재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전국 22곳을 경쟁력 강화사업지구로 지정·의결했다.

도내에는 군산·군산2국가산업단지, 새만금지구국가산업단지(준공지역),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이 포함돼 대개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 3월 2021년 산업단지 산단대개조 지역으로 예비선정됐고, 이번 경쟁력강화위원회 의결로 2022~2024년(3년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산단대개조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를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일자리창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해 국토부, 산업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종합 지원하는 정책이다.

3대 추진전략을 정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산단혁신 계획을 수립했고,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성과목표를 구체화했다.

그 결과 2022~24년 3년간 전북의 상용차 산업구조 30%를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로 전환으로, 매출액 1조2천억 원, 수출액은 1천억 원 달성, 고용효과도 직·간접고용 6천여명 등으로 추진목표를 도출했다.

또한 3월 30일자로 거점산단인 군산·군산2국가산업단지와 연계산단 새만금지구국가산업단지(준공지역),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가 경쟁력강화위원회 의결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공동 지정·고시됐다.

지난 1월 21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약칭 노후거점산단법)' 개정·시행에 따라 '연계지역' 개념을 신설(법 제2조제1호의2)해 2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를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산업중심 산업의 메카로 키워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관계부처,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